

# 말씀의 샘

## 솔직한 감사 <시편 136장 1~11절>

할렐루야! 2015년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한해를 돌아보는 중간점검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나오는 진실한 감사를 표현하고 새기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감사의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가슴 속에 넘치는 감사가 있으신가요? 한해동안 은혜롭고 행복한 일들도 많았겠지만 어쩌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청교도들처럼, 우리도 태평양을 건너 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생각지 못한 문제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외로움, 아픔을 겪은 후에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왔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감사가 별로 없이 무덤덤한 것 같기도 하고, 예의상 절기는 지키지만 진정 우리나라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가졌다고 해서 좋은 일, 항상 행복한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때로는 감사에 대한 딜레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정말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쥐어짜고 노력해야만 나오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까요? 만약, 우리 모두가 감사라는 주제를 두고 솔직해져야만 한다면 어느 정도의 감사가 남아있게 될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azon적이고 변함이 없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솔직해진다할지라도 남을 수 있는 감사를 묵상해보는 시간되길 바랍니다.

**첫째, 날 구원해주신 은혜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이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에 의해 영향 받지 않습니다. 절대 취소될 수 없고 퇴색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는 한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네로의 핍박이 다가올 때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벤전 1:6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네로의 핍박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이 핍박으로 시작해서 10명의 황제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거의 300년 가까운 시간을 핍박받으며 고생합니다. 여기서 무슨 즐거움이 있으며, 무슨 감사가 있었습니까?

**벤전 1:7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8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 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불로 연단하는 극한 상황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 있습니다. 모두를 다 잃어도, 감사할 제목이 이 땅에서는 하나도 없어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능력있는 크리스천입니다.

**벤전 1:1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 **오직 흙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것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금이나 은 같은 것 따위하고는 비교도 안되는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운 주님의 피, 그 보혈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영원토록 감사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노스웨스턴 대학 졸업생중에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은 187명이 죽어간 미시간호의 침몰사건 때, 맨몸으로 수영을 해서 17명을 구하여낸 영웅이었습니다. 800미터 거리를 17번이나 수영으로 왕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불구로 남은 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죽기 전 인터뷰에서 17명중 단 한사람도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하여내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가슴 터지게 진정 감사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그 감사는 벽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신 속성을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변하지 않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할 제목일까요? 이분은 우리들 만드신 분이요 우리의 본질이며 우리가 섬기는 대상입니다. 이분이 선하시다는 것, 이 선하

심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만일 반대로 이 전지 전능 하신분이 악하고 교활하며 우리 괴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다윗의 많은 시편을 보면, 사울에게 쫓겨다니 시간만 10년이 넘고, 평생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며, 무엇을 그리도 많이 찬양했습니까?  
**시편 3:1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3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괴로운 상황에서 그가 붙든 것은 “하나님은 이런 좋은 분이십니다”였습니다.

**시편 27:1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참 지혜로운 다윗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사단이 그 감사의 제목을 전혀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진 것,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고 자랑한다면 욕처럼 그것을 빼앗아가는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감사하면 사단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며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겠습니까? 여러분도 때론 다윗처럼, 때로는 현실에 쫓기고 문제에 쫓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착하고 싶은데, 안정되고 싶은데 계속 쫓기며 지치고 한숨이 절로 터져 나올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때, 다윗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시편 18:1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지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3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속성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구원을 실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 또한 이스라엘의 큰 절기때 성가대를 인도하는 자가 선창하고 회중이 후창하는 웅장한 찬양시입니다. 이 찬양이 마무리될 무렵, 그 회중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합니다. 계속 반복되어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인 것입니다.

**시편 136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심지어 포로기 때에도 절기를 지키러 와서 이 찬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포로 상황에 무엇이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할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변함이 없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주제 앞에 솔직해진다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감사의 제목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며, 반드시 감사하는 자를 건지십니다.  
2015년 추수 감사주일을 맞아 이러한 항존적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 2015. 10. 11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 2015. 10. 18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트루워십퍼  
말씀 선포 ----- 주길호 목사  
축도 ----- 이강화 목사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 예배안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